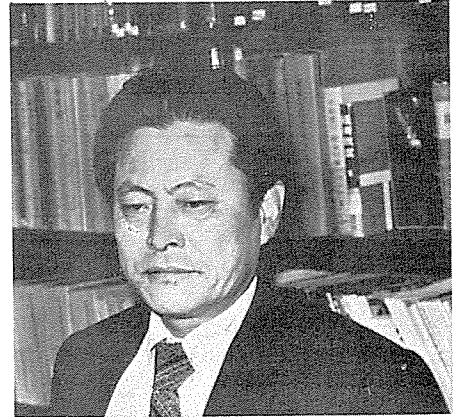


協和音의 언저리

大韓建築士協會 서울支部長 金枝泰
三垂建築研究所 所長



몇몇親友와 함께 茶한잔 나누고자 茶房에 가본다. 칙칙한 불빛아래 웅기중기 모여서 對話를 나누는 소리와 出入에 따른 빈번한 소리와 함께 共鳴하여 雜音으로 소란스럽기만하다. 이와 반대로 3백명을 넘는 合唱團의 메시아 합창이 웅장하고도 깊은 感動을 느끼게 하는 것은 두말할 것도 없다.

전자는 不協和音이고 후자는 協和音이기 때문이다.

우리들의 情緒生活를 淳化해 주는 藝術에 있어서 특히 音樂은 그 構成의 3要素中(和音, 拍子, 音程)和音을 으뜸으로 삼고있다. 各양各색의 旋律과 拍子가 調和를 이룰 때 잊을 수 없는 名曲으로서 우리들의 心琴을 오래도록 울려주고 있다. 造形에 속인 建築部門도 그 構成의 3要素를 갖춘 建築美의 眞面目을 처할 때 이는 바로 音樂의 和音과 調和의 理致와 다름이 없다고 본다.

美術에 있어서도 構圖의 均衡, 色調의 配合등이 훌륭하게 調合될 때 強하게 이끌리는 소리없는 和音을 볼 수 있다. 마치 體育行事時에 巨大한 mass-game의 一糸不乱의 律動과 調和의 美를보고 호뭇하게 느껴지는 거와 같다. 이와같이 모든現象의 極致는 和音과 調和에 의하여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를 위하여 人間은 有史 이래 끊임없이 노력하여 찬란한 文化遺産을 많이 남겨놓았다.

『和는 둘 이상의 數를 합하여서 나온 數值』라 하는 辭典의 풀이를 되새겨보면 서로 다른 둘 이상의 것이 고르게 합하여 더 훌륭한 하나를 이룬다는 뜻이라 하겠다. 따라서 『和』

의 참뜻을 알고 우리人間關係를 보다 부드럽게, 알맞게, 사이 좋게 하기 위한 노력이 절실히 요망되는 것이다. 작게는 한 家庭, 勤務하는 職場, 속해있는 團體, 크게는 한 國家의 興亡盛衰와도 깊은 關係를 맺고있지 않나 생각된다. 다시말해서 和睦한 家庭은 삶의 風波를 슬기롭게 克服하여 집안에 훈훈한 바람과 웃음을 날게할 뿐더러 이웃과는 미소로서 밝혀주어 共同生活의 運轉을 같은 역할을 하고있는데 比하여 和合치 못한 家庭은 사소한 일에도 騷亂스러운데다 이웃에 누를 끼칠뿐 아니라 어두운그림자를 自招하고 있는것을 보아 온 것이다.

이는 어찌 家庭에 局限하라 職場, 團體 및 社會도 그러하다. 相扶相助하여 相互補完의인 바탕과 理解로서 人和團結을 가져올 때 그 職場이나 社會는 發展케되고 雜音과 紛糾가 지속되는한 退步 또는 滅亡의 根幹임을 우리는 보아왔다. 例로 우리 記憶에도 생생한 1976년의 越南事態를 들수 있다. 國家存亡은 아랑곳없이 國論단 百家爭鳴式으로 분분하다가 끝내는 이 地球上에서 허무하게 消滅되어버린것은 結局 不協和音이 빛을 끄적한 教訓이라 생각한다.

昨年の 우리建築界의 周邊은 公正하고도 良識에 따른 業務處理가 되지 못하다보니 이에따른 不協和音은 도처에 도사리고 있고, 이따금 건축 關係業務를 둘러싸고 社會에 物議를 빛는 일들이 浮刻되곤한다. 快適한 都市環境과 造形空間의 構成을 위해 좋은 建築物을 創造(生産)하는데는

官民의 協同精神과 使命感없는 作品을 期待할 수 없다고 본다. 그러나 이러한 共同目標達成過程에서 惹起되는 諸問題處理에 利害相反된 各自의 立場만을 固守하다보니 騷音이 나올뿐만 아니라 社會의 指彈對象이 되어 화살을 피할수도 없는 것이다. 이러한 騷音의 震源은 어디에서 비롯되는지 생각해 볼일이 아닐 수 없다. 듣기좋은 協和音이 演奏되기 위해서, 音樂의 件이 先行되어야 하듯이 社會의 協和音의 바탕은 그 社會의 精神의 風土改善이 先行되므로서 이룰 수 있다고 본다. 즉 서로 信賴하고 責任은 分明히하며 誠實과 最善을 다하고 서로 情이 通하고 脈이 흐르는 對話와 社會에 奉仕하는 正진적 바탕을 기조로 하고 또한 健全한 社會俱現을 위하여 끊임없는 온갖 努力이 充溢되어야 하겠다.

바라건대 不信風潮없는 참신한 社會風土를 속히 成熟시켜 和音의 메아리로 널리 퍼져나가도록 하여야 한다.

우리나라도 經濟成長에 힘입어 모든 分野에 걸쳐 刮目할만한 發展을 이룩하였는데 이는 國民모두가 總和團結(協和音)하여 얻은 結果인 것이다. 이 成果를 바탕으로 中進國에서 先進國으로의 도약을 目標로 능숙하게 前進하고 있는중이나 이를 沮害하는 要因中에서 不協和音의 除去도 시급하다고 본다. 우리나라 속담에「빈양 철그릇이 시끄럽다」란 말이 있다. 이것은 不協和音속에서 얻는것 보다 많은 것이 많다는 것을 일깨워주는 뜻 이리라. <*>